

“내수·수출 암울”...광주·전남 中企 내년 1월 경기전망 ‘꽁꽁’

전월比 3.9p 하락...전남지역 하락폭 커
내수판매·수출전망 각 3.0p·7.3p 감소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하락하며 석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내수, 수출, 경상이익 등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 2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경기전망지수(SB

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를 발표했다. 경기전망지수란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예측하는 지수로 100 이상은 경기 상승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100 이하는 경기 하강을 전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내년 1월 광주·전남 경기전망지수는 73.3으로 집계돼 전월(77.2) 대비 3.9포인트(p) 낮았다. 이는 전년 동일

(79.3)과 비교해 60p 하락한 결과다. 광주 지역의 경기전망지수는 72.3으로 전월(72.8) 대비 0.5p 감소했지만 전남은 74.1로 같은 기간(81.1) 대비 7.0p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4.2로 전월(76.0) 대비 1.8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은 72.0으로 전월(78.7) 대비 6.7p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판매는

72.4에서 69.4로 수출전망은 87.9에서 80.6으로 하락했다. 경상이익 전망도 71.7에서 67.7로 감소했으며 자금 사정 전망도 69.6에서 65.7로 악화됐다. 다만 역계열 추세인 고용 수준은 90.8에서 90.6으로 소폭 개선됐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상승(39.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매출(제품 판매) 부진(37.8%)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70.2%로 전월(70.6%) 대비 0.4%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9.1%로 전월(68.9%) 대비 0.2%p 상승했으나 전남은 71.4%로 전월(72.3%) 대비 0.9%p 하락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보유 생산 설비의 월간 생산능력 대비 해당 월의 평균 생산량 비율로 80% 이상을 정상 가동으로 본다. /정은솔기자



NH농협생명 전남충국 ‘새해 사업추진 결의대회’ 성료

NH농협생명 전남충국은 29일 “최근 전남농협본부 대강당에서 전남 관내 농·축협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생명보험 새해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결의대회는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전남 농축협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생명보험 사업추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윤점숙 NH농협생명 전남충국 단장

지역 中企·자영업자 설 특별자금 지원

한은 광주전남본부, 업체당 5억 이내...내달 27일까지 관할 소재 대상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자금 성수기인 설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300억원(금융기관 대

지원기간 중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412월 현재 연 1.50%)로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만기자

고환율에 中企 ‘비명’...환리스크 무방비

원자재 수입 내수 집중 기업 직격탄

연초 1천300원대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5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중소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환율 급등 여파로 산업계 전반이 시름하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29일 산업계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환리스크(위험)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판매는 내수에 집중해 온 중소기업들이 최근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K-뷰티’로 수출에 날개를 단 화장품 업계 역시 환율 급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출 증가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에 따른 손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응하더라도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은 부재한 편이다. 대체로 단기 조정이나 원가절감, 대금결제일 조정 등 간접적인 대응에 나서는 데 그쳐 환율이 급변하면 고스란히 환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중소기업들이 당장 겪는 손해를 넘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일 수출액 격차 200억달러 ‘역대 최저’

올해 1~11월 한국과 일본의 대(對)세계 수출액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인 202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의 수출액은 9% 증가했다. 수출액 순위도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6위를 기록해 5위인 일본을 바짝 추격했다. 다만 올해와 같은 수출 호실적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가 일본 재무성의 수출액 잠정치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6천223억8천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본(6천425억9천800만달러)과 격차는 202억1천200만달러로, 역대 최

저치를 기록했다. 한일 수출액 격차가 200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양국간 수출액 격차는 2010년 3천36억 달러에서 2013년 1천552억 달러로 줄어든 이후 2021년(1천116억 달러)까지 8년간 1천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2년 632억4천만 달러, 지난해 850억3천500만 달러를 거쳐 올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10대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에 각각 올랐다. 올해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의 54.9%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중국·아세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수출 실적

로또복권 (제 1152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30 31 32 35 36 37 / 보너스 5		
1등	874,349,668	6개 숫자 일치
2등	64,561,685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20,684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 (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 (실내스크린골프 20개 구장)
- 골프채·골프용품 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